

# 공무원의 관광영향 지각, 관광정책만족도가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봉구<sup>1\*</sup>, 김태구<sup>1</sup>, 이계희<sup>1</sup>  
<sup>1</sup>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Relationship among level of Performance of Tourism, Perception of Effects, and Level of Importance of Tourism industry

Bong-Gu Jee<sup>1\*</sup>, Tae-Gu Kim<sup>1</sup> and Gyehee Lee<sup>1</sup>

<sup>1</sup>Dept. of Tourism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의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지각이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에 대한 효과지각은 관광정책 만족도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요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관광영향 지각의 혜택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관광영향의 비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관광정책 만족도가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영향의 혜택이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영향의 비용이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into the influence of the public servants' perception of tourism industry on their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the tourism industry. For a study, the posi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which the public servants' perception of tourism industry wa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satisfaction of tourism poli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enevolent influence of the public servants' perception of tourism industr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ourism policy and the cost of tourist influence had no significance of itself. It has been shown that both the influence of the public servants' perception of tourism effect on their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at of the benevolence of the tourist influence on the understanding for the importance of tourism industry showed had plus(+) effects. Especially,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fluence of the cost of tourist effect on the understanding for the importance of tourism industry had a minus(-) effect.

**Key Words** : Official servants, Perceived Impact, Importance of Tourism industry

### 1. 서론

초기의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관광산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분석에서는 단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주로 사용된 분석도구가 승수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등과 같이 객관적 2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분석들은 관광산업을 정부전략 산업으로 채택하고, 정책적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파악하는 데는 한

“본 연구는 2011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110066)

\*교신저자 : 지봉구(tourxpert@khu.ac.kr)

접수일 11년 06월 14일 수정일 (1차 11년 08월 01일, 2차 11년 08월 09일, 3차 11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11년 08월 11일

계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여가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전국적인 관광개발욕구가 팽창하던 시기에는 환경론자들의 난개발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보상논리에 관광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론자나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이의제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1,2].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최근 들어 관광객 중심의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 경향이 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관광영향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주체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깊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지각을 중심으로 관광정책만족도와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는 관광개발의 가부가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별이라든가 관광산업 관련정도나 같은 관광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6]. 그러나, 본 연구는 관광영향의 주체가 공무원이므로 관광영향, 관광정책 만족도, 그리고,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이론연구

### 2.1 관광영향관련 선행연구

관광분야에서 영향이란 관광개발 혹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따른 유무형의 제반 효과를 의미하며,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이 곧 지역주민들의 인식 내지는 지각이라 할 수 있다 [6].

기존의 관광영향과 관련된 초기는 경제효과가 주로 강조되었고, 관광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던 시기를 거쳐, 관광영향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연구되었다[7].

관광의 긍정적 영향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영향과 같은 측정가능하며,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관광의 경제적 영향이 주로 해당되며, 관광개발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광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장기적이며, 측정이 어려운 영향들이 주로 해당된다. 대체로 사회문화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해당된다.

관광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지각의 주체, 지각 대상,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각의 주체는 지역주민, 관광객,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지각 대상은 관광지 개발의 영향, 하드웨어(예, 편의시설)와 소프트웨어 관광(예, 축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8].

### 2.2 공무원 대상 관광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관광과 공무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관광행동의 주체[9], 직무만족[10],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인식 [2,3,5,8,11]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최승묵·김남조는 주로 관광담당 공무원의 특성별 차이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11]. 김석출·최영희·김학균은 관광관련 공무원의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 태도, 그리고 만족도를 측정하였다[5]. 지봉구·박호표는 공무원 특성별 차이와 전체관광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2]. 또한, 지봉구는 관광영향이 전체 관광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지리적 특성과 관광관련 정도에 따라 측정하였다[3].

황수영[12]은 강화도축제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광영향과 관광개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민이 공무원보다 관광영향 중 긍정적인 주민의식, 부정적인 환경영향, 긍정적인 문화기반영향에서 더 높은 관광영향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공무원의 관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들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관광지에 대한 개발여부나 시설의 투자여부를 시설이나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공무원이 관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이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광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방법

### 3.1 연구모형

#### 3.1.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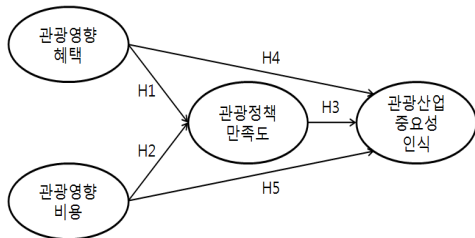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영향 지각

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 3.1.2 가설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공무원의 관광정책 만족도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 가설 1 : 관광영향의 혜택은 관광정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관광영향의 비용은 관광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관광정책 만족도는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 관광영향의 혜택은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 관광영향의 비용은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 3.2 측정항목 개발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관광영향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영향지각 항목들을 원용하여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즉, 관광영향의 혜택은 경제적 영향(5문항), 사회문화적 영향(5문항), 환경적 영향(5문항)으로 대별하여 영향변수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관광영향의 비용도 경제적 영향(5문항), 사회문화적 영향(5문항), 환경적 영향(5문항)으로 대별하여 영향변수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관광정책만족도와 관광산업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1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정책 만족도는 ‘평소에 충북의 관광정책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도는 ‘충북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중요하다’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혜택의 경제적 영향 요인은

‘관광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관광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관광은 지역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관광은 지역 세금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혜택의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은 ‘도로망,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 정비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관광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 및 애郷심이 증가할 것이다’,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관광객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화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혜택의 환경적 요인은 ‘충북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정비한다’, 그리고, ‘관광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비용의 경제적 영향요인은 ‘관광으로 인하여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이 심해 질 것이다’, ‘관광이 물가를 오르게 하여 생활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관광이 주밀들과 과소비성향을 부추길 것이다’, ‘관광은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관광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비용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관광으로 인해 범죄, 폭력, 매춘 등이 늘어날 것이다’, ‘관광객의 유입으로 풍기문란 등 미풍양속을 해칠 것이다’, ‘관광으로 인해 교통혼잡, 체증 및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다’, ‘관광이 지역의 고유한 가치관을 해칠 것이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사회진출로 가족유대관계가 약해졌다’의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관광영향에 대한 비용의 환경적 요인은 ‘관광객 때문에 개발지역이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졌다’, ‘관광지 연결도로 등의 건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소음수준이 심각하다’, ‘토양, 수질, 식생의 변화를 초래하여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관광은 대기오염을 야기시켰다’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측정척도(measurement scale)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의 1점에서 5점의 범주 안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항목은 김의근[13], 용환재[14], 최승묵김남조[11], 지봉구[3]가 이용한 척도를 공무원 대상에 맞게 조정하였다.

[표 1] 측정모형 분석결과  
[Table 1] Analysis results

구성개념	항목	요인 적재치	표준요인 적재치	C.R.(t)	P	구성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경제적 혜택	경제1 : 일자리 창출	1.000	.886	-	-	0.850	0.661
	경제2 : 소득 증가	.893	.926	15.626	***		
	경제4 : 지역경제 활성화	.646	.612	9.625	***		
사회문화적 혜택	사문3 : 여가기회 증가	1.000	.766	-	-	0.874	0.698
	사문2 : 문화 정체성 확립	.875	.724	8.928	***		
	사문4 : 애향심 증가	.859	.698	8.703	***		
환경적 혜택	환경1 : 지역환경 보존	1.000	.646	-	-	0.789	0.558
	환경2 : 자연보호지역의 유지	.987	.749	6.559	***		
	환경3 : 청결한 환경유지	.698	.568	6.040	***		
경제적 비용	경제9 : 주민의 과소비 조장	1.000	.882	-	-	0.845	0.649
	경제10 : 조세부담의 증가	.766	.733	11.025	***		
	경제8 : 생활물가의 상승	.849	.757	11.418	***		
사회문화적 비용	사문9 : 여가공간의 혼잡	1.000	.845	-	-	0.931	0.773
	사문10 : 지역 가치관의 훼손	.892	.751	11.517	***		
	사문8 : 교통혼잡의 초래	.875	.729	11.109	***		
	사문6 : 범죄발생의 증가	.714	.604	8.833	***		
환경적 비용	환경6 : 관광객 소음의 증가	1.000	.756	-	-	0.924	0.752
	환경10 : 환경오염의 발생	.832	.656	8.598	***		
	환경5 : 자연경관의 파괴	.971	.717	9.341	***		
	환경4 : 쓰레기 발생량 증가	.856	.644	8.436	***		

df=155, x<sup>2</sup>=258.648(p=0.000), CMIN/DF=1.669, GFI=0.896, AGFI=0.859, CFI=0.939, RMR=0.036, IFI=0.940, NFI=0.862

###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관광영향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충청북도청과 각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충청북도 문화관광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내용을 설명한 후 각 시도 관광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공무원의 관광영향을 측정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시간과 조사의 편리성이 강조되는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26부가 회수되어 응답이 미흡한 20부를 제외한 206부를 유효표본으로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인식을 타당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총 30개 변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관광영향이 관광정책만족도, 그리고, 관광산업 중요성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19.0)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 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공무

원의 성별은 총 응답자 206명 중 남성이 159명으로 77.2%이고, 여성이 47명으로 22.8%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17명으로 8.3%, 30대가 91명으로 44.2%, 40대가 74명으로 35.9%, 50대 이상이 11.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무년수는 '5년 이하'가 47명(22.8%), '10년 이하'가 27명(13.1%), '15년 이하'가 36명(17.5%), '20년 이하'가 13명(6.3%), 그리고, '20년 이상'이 83명(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분석결과

### 4.1 단일차원성과 신뢰성 분석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는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개념과 그 측정변수가 포함된다. 측정 차원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대하여 확증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며, 측정모형의 분석은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이 df=155, x<sup>2</sup>=258.648(p=0.000), CMIN/DF=1.669, GFI=0.896, AGFI=0.859, CFI=0.939, RMR=0.036, IFI=0.940으로 적합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단위들에 대한 표준

요인 부하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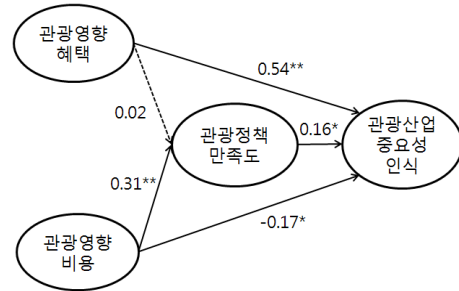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일반적인 기준인 0.5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해당 연구개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중타당성은 충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들 사이의 판별타당성의 충족정도와 요인간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요인들의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0].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 요인간의 관계가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있고, 서로 간의 상관계수가 1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과 기준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15,16].

### 4.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수추정,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283.877(df=180, p=0.00, CMIN/DF=1.577, GFI=0.888,$

$AGFI=0.856, CFI=0.937, RMR=0.041, RMR=0.041, NFI=0.848$ 을 갖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모형이 도출되었다.



$df=180, \chi^2=283.877(p=0.000), CMIN/DF=1.577, GFI=0.888, AGFI=0.856, CFI=0.937, RMR=0.041, NFI=0.848, IFI=0.939, TLI=0.927$

[그림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Fig 2] Path diagram for research model.

이러한 결과는 적합도 지수의 충족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념들 간의 관계를 결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좋은 모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구가설 검증 결과와 가설채택여부를 표 3에 제시하였다.

H 2(관광영향 비용 → 관광정책 만족도), H 3(정보 품질→사용자 만족도), H 3(관광정책 만족도 → 관광산업

[표 2] 각 연구단위들간의 상관관계  
[Table 2] Inter-Construct correlations

	I	1	2	3	II	4	5	6	III	IV	M	SD
I. 관광영향 혜택	1										3.51	.476
1. 경제적 혜택	.804 (**)	1									3.59	.649
2. 사회문화적 혜택	.787 (**)	.544 (**)	1								3.62	.604
3. 환경적 혜택	.679 (**)	.270 (**)	.265 (**)	1							3.31	.635
II. 관광영향 비용	-.128	-.059	-.156 (*)	-.080	1						2.91	.567
4. 경제적 비용	-.092	-.108	-.168 (*)	.063	.809 (**)	1					2.71	.692
5. 사회문화적 비용	-.090	-.045	-.139 (*)	-.024	.869 (**)	.558 (**)	1				2.92	.719
6. 환경적 비용	-.139 (*)	.012	-.075	-.253 (**)	.803 (**)	.442 (**)	.581 (**)	1			3.09	.644
III. 관광정책 만족도	-.040	.005	-.107	.006	.232 (**)	.162 (*)	.226 (**)	.187 (**)	1		2.82	.816
IV. 관광산업 중요성	.347 (**)	.418 (**)	.274 (**)	.094	-.076	-.057	-.125	-.001	.104	1	3.36	.882

\* p<0.05. \*\* p<0.01.

[표 3] 구조모형 추정결과

[Table 3] results for the final structural model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t값	p	채택 여부
H1	관광영향 혜택 → 관광정책만족도	0.02	0.21	0.84	기각
H2	관광영향 비용 → 관광정책만족도	0.31**	3.80	0.00	채택
H3	관광정책 만족도 →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	0.16*	2.18	0.03	채택
H4	관광영향 혜택 →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	0.54**	4.38	0.00	채택
H5	관광영향 혜택 →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	-0.17*	-2.03	0.04	채택

\*\* p<0.01.

중요성 인식), H 4(관광영향 혜택 →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 H 5(관광영향 비용 →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의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H 1(관광영향 혜택 → 관광정책 만족도)은 기각되었다.

가설 검증결과, 본 논문에서는 관광영향 혜택, 즉, 긍정적 관광영향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또는 일반적인 상상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성과는 담당공무원들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관광영향의 혜택과 비용에 대한 잠재요인은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혜택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그리고 지역경제 이익으로 구성되었고, 사회문화적 혜택은 여가 기회 증가, 애향심 증가, 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적 혜택은 지역환경 보존, 자연보호지역의 유지, 그리고 청결한 환경유지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경제적 비용은 주민의 과소비 조장, 조세부담의 증가,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사회문화적 비용은 여가공간의 혼잡, 지역 가치관의 훼손, 교통혼잡의 초래, 범죄발생의 증가로, 그리고, 환경적 비용은 소음의 증가, 환경오염의 증가, 자연경관의 파괴,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구성되었다.

둘째, 관광영향 혜택과 비용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시사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관광목적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광영향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관광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관광영향의 혜택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의 관광영향의 혜택이 관광정책에 대해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관광영향의 비용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영향의 혜택보다는 관광영향의 비용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영향의 비용적 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관광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영향의 비용적 요인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수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관광영향 혜택이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관광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영향의 혜택을 높게 인식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평가할 만한 관광정책이 뚜렷하게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광영향 비용이 관광정책 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즉, 관광영향의 비용적 측면을 높게 보는 공무원들은 지금의 관광정책을 옹호하면서 새로운 관광산업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광정책의 만족도와 관광산업의 중요성 척도를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척도는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의 관광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관광정책의 만족도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Cho, K. I., Kim, N., J.,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6(2)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02.
- [2] Jee, B., G., & Park, H., P., Officials' Perception Differences on Tourism Impact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1(1) KTRI(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2007.
- [3] Jee, B., G., Officials' Perception Differences on Tourism Impact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2(1),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007.
- [4] Lee, T., J., & Song, K., S., A study of Determanants on Local Self-Governance in Touris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0(2),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998.
- [5] Kim, S., C., Choi, Y., H., & Kim, H., G, Perception,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Tourists and Civil servants toward Anmyundo Tourism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0(3),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006.
- [6] Ko, D., W., The Differences of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 A view from the Demographic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5(3)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01.
- [7] Lee, H., 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and the Attitude toward Tourism Development : the Case of SUBJIKOJI, where "All in" was sho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8(3)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pp. 221-238, 2004.
- [8] Lee, G., H., & Jee, B., G., Relationship among Level of Performance of Residents to Tourism, Perception, of Tourism Effects, and Inte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era Contents Association, 11(2),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pp. 416-424, 2011.
- [9] Jung, Y., A., Ju, S., W., & Park, H., S., Travel Behavior and Barriers - Government Employees of Korea/Japa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ulture and Tourism, 4(2),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ulture and Tourism, 459-470, 2002.
- [10] Kim, D., K., & Kim, D., W.,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ublic Tourism Sector, Journal of Korean Policy, Vol., 8(3), 71-90, 2002.
- [11] Choi, S., M., & Kim, N., J., Attitudes of Tourism-involved Civil Servants towards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9(1)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9-227, 2005.
- [12] Hwang, S., Y.,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Tourism and Tourism Development as Perceived by Local Residents and Civil Servant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5(4),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010.
- [13] Kim, U., G.,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Jungmun and Sungsanpo Tourist Complex,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7(1),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pp. 123-138, 2004.
- [14] Yong, H., J., A Study of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Effects from the Opening of Daejin Express Highway, Korea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Organization, 8(1), Tourism Management Research Organization, pp. 145-173, 2004.
- [15] JHair, .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New Jersey : Prentice-Hall, 1998.
- [16] Challagalla, G. N, & Shervani, T. A.,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 Mark, 60 : 89-105 [January], 1996.

## 지 봉 구(Bong-Gu Jee)

[정회원]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관광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관광전략, 의사결정, 관광콘텐츠

김 태 구(Taegoo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  
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6년 2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  
광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  
교 관광학부 전임강사(연구)

<관심분야>

관광환대산업부문 전략경영, 지식경영

---

이 계 희(Gyehee Lee)

[정회원]



- 1992년 5월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호텔경영학석사)
- 2001년 12월 : Purdue University  
(관광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  
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관광지 마케팅, 소비자 행동론